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17년 12월 (제43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월스님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어른답게 행동, 존경받는 노인회 만들겠다”

이형주 홍천군노인회장 당선자

“어르신들이 즐겁고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11월 15일 홍천읍 크리스탈웨딩홀에서 홍천지역 경로당 회장 215명 중 2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대 홍천군노인회장 선거에서 114표를 얻어 당선된 이형주(74) 홍천읍 노인회장은 “무엇보다 4년 전 출마했다가 동점을 획득했으나 나이가 적어 탈락한 악몽에서 벗어났지만 당선된 기쁨보다는 어깨의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 제10대 홍천군노인회장 당선자 이형주 씨가 홍천실버신문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왼쪽)

4년전 동점탈락 악몽 극복 초고령사회 노인문제해결에 앞장 노인회 문제점등 개선, 10개 읍면 노인회장과 회원 협조 당부

이 회장은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원칙을 준수하며, 노인 권익향상과 노인 건강, 노인 일자리 확충 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초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행정당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세워 문제점을 보완해 새롭게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노인회장 선거관리 규정과 경로당 운영규칙을 철저히 지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회장은 “노인회장 선거를 분쟁이 없

도록 추대와 응립 등 선출규정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단합과 화합, 양보와 배려로 어른답게 처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의 좌우명은 ‘사필귀정’이다. 정의, 바른 일은 반드시 그 모습이 있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착하고 정직하게 처신하면 정의가 이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노인 회원들을 정성껏 모시겠다며 10개 읍면 노인회장과 회원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10개

읍면분회의 활동상황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천실버신문에 지속적인 기재를 바란다고 했다.

이 회장은 홍천농협 전무, 홍천군 이장협의 회장, 강원도 게이트볼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2월 4일 열린다. 박세구 기자

* 홍천실버신문에서 홍천관내의 다양한 정보 및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홍천실버신문은 55세 이상 어르신 기자단이 만들어 가는 신문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제공받고 싶은 분은 구독신청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구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 홍천실버신문은 개인 및 단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자 2,000부가 발송되고 있으니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광고료는 공익성 유무 확인 후 홍천실버신문 광고료 규정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12월 행사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7.12.01.(금) 13:00~	홍천문화예술회관	제7회 송년잔치 / 제4회 작품전시회
2017.12.14.(목) 11:00~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시니어예술단 평가회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다문화가정이야기
06 - 유적지/전설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전국민요경창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 인생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도 우수상은 단원들 열성으로 만든 기적

창립 2년된 신생팀, 평균연령 70세 팀워크가 큰 장점
내년 전국대회우승후 해외동포에 우리가요 공연이 꿈



◇ 홍천군노인복지관 장락만년(색소폰동아리)

홍천군노인복지관 색소폰동아리인 장락만년(단장 박영근)이 지난 10월 14일 인제에서 열린 강원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장락만년은 순수 초보자로 구성되어 주2회(월요일 10:00~12:00, 수요일 15:00~17:00) 활동하며, 창립된 지 2년밖에 안된 신생팀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장락만년 단원들의 평균연령은 70세이다. 합주이기 때문에 한사람만 어긋나도 리듬이 깨져 무엇보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박 단장에게 수상소감을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열성적인 단원들 덕분이다. 인생을 음악으로 즐겁게 살면서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소통

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일본어 통역봉사 활동을 앞두고 마음이 설렌다고 했다.

이번 공연에는 단원 30명 중 21명이 참가했다. 장락만년 단원들은 무엇보다 음악으로 사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후에는 해외동포 위문공연도 생각하고 있다. 중국과 사할린 고려인 마을을 두루 순방해서 아리랑과 우리가요를 들려주며 그들과 끈끈한 동족의 정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단원들은 농축된 예술적 감각과 인격적인 지도로 박 단장을 존경한다고 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색소폰 동아리 김규진 대표는 “우선은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는 동아리가 되겠다. 그리고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박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박형균(61) 총무도 “그 어떤 단체나 조직도 알파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끌리고 샘솟는 의욕 같은 거. 박 단장님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다”고 했다. 주위에 있던 박현석(68), 김명식(78) 단원도 박 단장을 칭찬했다.

장락만년의 이번 우수상 수상은 팀원들의 하나로 뭉친 화합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단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정철 기자



홍천시니어예술단 실버악단 금상 수상



홍천군노인복지관 시니어예술단 실버악단이 11월 11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홍천악기동아리연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노인일자리 우수자 최금자 씨 등 8명 수상



11월 21, 22일 열린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 평가회에서 군수상은 최금자·차순재 씨, 군 의장상은 원선경·김완제 씨, 운영위원장상은 유문희·고영규 씨, 노인복지관장상은 임정식·박근화 씨가 수상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농어촌 발전지원사업 선정



홍천군노인복지관은 랫츠런재단이 추진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지원사업에 선정돼 5백만원을 지원받아 경로식당 식탁세트를 교체했다.

귀농·귀촌인 이야기(12) 2017년 홍천군귀농귀촌한마당 행사 참관기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 품질에 자신감



◇ '2017년 홍천군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가 11월 18일 동홍천삼포권역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귀농귀촌 후 배운 노래 악기 등 실력 발휘 농촌생활 만족 최신농법 전문지식 배우고 원주민과 소통해야 정착 성공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홍천이 좋아요.”

지난 11월 18일 동홍천삼포권역센터(화촌면 군업리)에서 열린 2017년 홍천군귀농귀촌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귀농귀촌인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천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와 귀농귀촌'이라는 주제로 홍천군귀농귀촌지원센터(센터장 이병기)가 주관하고 홍천군귀농귀촌연합회(회장 이용수), 홍천상생네트워크(회장 김정익)가 후원한 가운데 귀농귀촌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귀농귀촌인들은 28개 부스를 운영해 농산물을 전시·판매했다. 송익재 씨는 도라지, 더덕, 황기, 구기자, 고사리 등 만물상을 차렸고, 안민혁 씨는 오미자, 김준옥 씨는 배, 김진호 씨는 자색 고구마, 가부원 씨는 가지, 무말랭이, 장재규 씨는 블루베리 묘목 등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품질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홍천군 귀농귀촌 정책도 홍보했다.

김준옥 씨는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고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귀농했다”며 농촌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후 취미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밴드, 풍물연주, 악기, 노래 등 수준급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최민규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강의를 통해 “예비귀농인은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귀농을 결정해야 한다”며 “귀농한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득창출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차산업(생산,가공,유통)이 귀농 후 농가 소득을 올리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수시로 농산물 박람회장을 찾아가 최신 농법을 배우는 등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홍천은 남부지역 농산물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남부지역을 자주 답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귀촌인은 전문지식을 활용

한 재능기부 일자리를 추천했다.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홍천지역 귀농인들은 사과, 오미자, 산마늘, 구기자 등 기후변화에 맞는 특화된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홍천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1시간 거리로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이 있고, 넓은 강과 맑은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전국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농귀촌지역이다.

2016년 7월 전국최초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홍천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9800 명으로 집계됐다.

홍천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홍천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멘토단 25명이 10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귀농귀촌인들은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해 귀농귀촌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성숙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정규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42) 동면 신봉리 경로당

올해王大추 첫 수확 1,000만원 소득



◇ 동면 신봉리 경로당회원들(회장 최재언(74)·앞줄 가운데)

고사리 재배, 꽃길 가꾸기, 불우이웃돕기등 술선수범 지난해 전국노인자원봉사축제서 복지부장관상 수상

홍천군 동면 신봉리 경로당은 1998년 3월 5일 최석현(84) 초대회장과 1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다. 현재는 최재언(74) 회장 등 51명(남자회원 26명, 여자회원 25명)으로 늘어났다.

신봉리 경로당은 2015년부터 회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해 3000평에王大추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수확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 수익금으로 안마기와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王大추는 상품가치가 높은 것은 직접 판매하고 그 외 상품은 엑기스 등을 만들었다. 내년에 판로 개척을 위해 품평회를 개최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 또 올해부터 20명의 회원들이 일자리사업으로 1000여 평에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다.

경로당회원 51명 가운데 4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또 방부목으로 만든 틀 100여 개에 꽃을 심어 꽃길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방

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신봉리 경로당은 2016년 제10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 축제에서 자원봉사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최 회장은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김동근(72) 회원은 올해 한국연예인예술협회 홍천지회 주관 실버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고령자인 박옥돌(89) 씨와 황인환(86) 씨는 봉사하고 웃고, 세끼 거르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

이라고 했다.

경로당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해 불우이웃돕기성금(50만원)으로 기탁했다고 한다.

회원들은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작은 금액이라도 불우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농한기에는 경로당을 개방해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요와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마을에 있는 분교를 매입해 체험학습장과 경로당을 지어 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혈압측정기와 운동기구가 없어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신봉리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전력 서울본부가 매년 농번기 때 일손을 돕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최재언	74	스님
부회장	김동근	72	농업
부회장	이윤영	73	주부
사무장	박원영	76	농업
감사	유갑선	82	농업

☎ 033-436-8998

고시조

덧잎소리

- 이우(李瑀) / 조선중기의 문신(1469~1517)

창에 눈보라 치고 / 촛불 희미한데
달빛에 소나무 그림자 / 처마에 어른댄다
밤깊어 알겠네 / 산바람 지나는 줄
담 너머 쓸쓸한 / 덧잎소리

·해설: 이 시는 1510년 시인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동을 유람하고서 쓴 것이다. 시인은 눈 오는 겨울, 우계현(오늘날 강릉시 옥계면) 객사에 들었다. 창에는 눈보라치고 방안은 쓸렁하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으로 촛불이 흔들린다. 밖을 내다보니 체로 거른 듯 비치는 달빛에 소나무 그림자가 처마에 내렸다. 객사 담장 너머에서는 바람에 덧잎소리가 쓸쓸하게 들린다. 그것은 밤에 불어 오는 차가운 산바람이기에 화자를 더욱 감상적으로 만든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水有七德(수유칠덕)

노자(老子)는 인간수양을 물이 가진 일곱 가지의 덕목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1.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2.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3. 구경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4.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
5. 바위도 뚫는 끈기와 인내
6.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7.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

조정철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1) 홍천군 서면 응우옌 티후옌 (41) 씨

시부모 사랑 지극한 효부... 한국어도 능통



◇ 응우옌 티후옌(41) 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베트남채소를 가꾸고 있다.

운전면허 한 번에 합격 곧 국적취득 모든 일에 열정 부부모임 해외여행 등 가족 화목 지금은 최고의 행복

“한국에 살면서 한국요리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베트남에서 시집과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살고 있는 응우옌 티후옌(41) 씨는 “한국에 시집왔으면 한국의 모든 걸 다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베트남 하이퐁에서 아버지 응우옌 번누옌(72) 씨와 어머니 응우옌 티빈(68) 씨의 2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 농사를 도우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

그녀의 여동생이 2009년 한국으로 시집과 수원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부(여동생의 남편)의 소개로 2013년 1월 15일 남편(표완석·53)을 만났다. 잘생긴 얼굴에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성격도 좋아 보여 부모님과 언니도 좋아했다. 만난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5월 20일 한국에 왔다.

남편은 아버지 표유봉(80) 씨와 어머니 김금옥 씨의 3남 1녀 중 누나가 있는 맏아들로 중학교 졸업 후 농사와 건축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시집오기 전에도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시집와서 바로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10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웠다. 한국 온지 4년 조금 지났지만 한국어를 능숙

하게 잘한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시집에서 떨어져 있는 논밭에 갈 때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지만 농작물을 집으로 옮기려면 차량이 필요했다. 남편이 운행하는 2.5톤 트럭이 있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어 사사건건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3일간 집안일 안하고 운전면허시험 공부할게요”라고 말한 후 운전면허증 취득에 도전했다. 시어머니도 쾌히 승낙했다. 열심히 필기시험을 준비한 끝에 합격했다. 시아버지는 “한국어로 필기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 뭐든지 잘한다!”며 머리를 자랑했다. 2015년 1월 14일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한 번에 취득하자 시어머니가 가족잔치를 열었다.

그녀는 시부모와 남편이 모두 마음이 좋고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고마워했다. 2016년 4월 10일 한국 국적신청을 했다. 면접시험 전날에 시아버지가 애국가 등 예상문제를 차근차근 알려줘 6월 23일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아직 자녀가 없어 국적취득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난 9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지점검과 관련서류 제출 등이 끝나 곧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

시했다.

시부모 사랑도 끔찍하다. “시어머니 친절어머니 다 똑같아요! 잘 모셔야 해요!” 그녀는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 구입이 저렴하다”며 시아버지 좋아하는 홍시를 자주 구입해 드린다. 또 닭고기를 좋아해서 닭볶음탕, 백숙 등을 해먹거나 가끔씩 춘천으로 닭갈비 외식을 간다고 했다. 고향에서 베트남 모자인 넝라(Non la)를 시어머니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는 비닐하우스 몇 동에 베트남고추, 공심채, 콩더이 등을 심어 1상자씩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끔씩 구입을 자제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생산된 채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든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해 인근마을 식당(귀거래사)에서 몇 달 동안 일하던 중 시어머니가 심혈관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올해 1월 7일 대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시아버지도 신장질환으로 한 달의 절반 이상을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시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라고 했다. 홍천군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에 그동안 온가족이 참석했는데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 앞으로는 참석 못할 것 같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일손이 바빴을 때는 친정어머니가 그녀의 집에 와서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다. 친정어머니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농촌이 좋다고 했다. 지금은 수원에 사는 작은 딸네 집에서 외손자들을 돌보고 있다. 친정아버지도 한국에 와서 작은 사위와 10개월을 관광을 하고 귀국했다.

시어머니 사망 후 음식을 만들다 모르면 인터넷이나 춘천에 사는 시이모에게 물어 연근조림이나 오이장아찌 등을 만들어 한국음식 솜씨가 좋다.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2014년 10월 경주에 1박2일 다녀왔고, 용인민속촌과 남이섬 등을 구경했다. 또 부부모임에서 2년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2014년 1월엔 베트남, 캄보디아, 2016년 1월엔 태국을 다녀왔으며 내년 2월엔 타이완을 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유적지 탐방(22) 홍천 수타사 흥회루

도내 유일의 우각진입 대적광전 마주봐 강당 활용



◇ 홍천수타사 흥회루

홍천군 동면 수타사 흥회루는 2015년 8월 15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2호로 지정됐다. 흥회루는 효종 9년(1658년)에 건립된 누강당 형식의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의 장방형 구조이다. 자연석으로 외벽대 기반을 놓았으며 초석도 자연석을 썼는데 형태가 아주 자유롭다. 기둥은 모두 원형기둥이며 치밀하게 가공된 모습이다. 공포는 주

심포식 공포를 결구하고 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절의 중심 공간으로 들어갈 때 루(樓) 아래로 드나드는 누하진입(樓下進入) 방식이 보통 사찰에 널

리 채택된 방식이나 흥회루는 단층으로 되어 누각 옆으로 돌아서 사역 중심으로 들어가는 우각진입(右閣進入)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독특하다. 강원도에 남아 있는 누각 중 유일하다.

이러한 흥회루는 대적광전을 마주보고 개방되어 있어 설법을 위한 강당 및 신도들이 대거 모이는 수륙재, 기우재 등 대형 불교행사를 거행하던 장소로 활용되었다.

흥회루는 내부의 천장 반자, 판벽, 미닫이 판문 등 창건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나 비교적 17세기 창건 당시 조선시대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어 건축사 연구 가치가 크며 2016년 원형을 살려 보수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였다.

박영권 기자



전설(22) 홍천 마지기 고개

홍천 우시장서 춘천으로 소 팔러 가는 첫 번째 관문



◇ 홍천마지기 고개

마지기 고개는 산림이 울창하여 경관이 수려하였으나 산이 험준했다. 일제시대 광석을 캐던 굴이 있었고 지금도 형체가 남아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소를 운반하는 여건이 안 되어서 홍천 우시장에서 매매하던 소를 춘천 우두동 소시장까지 운반하기 위

해 오후 4시쯤 소의 행렬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찬영 등은 소 두 마리를 이끌고 저녁노을이 깃들 때 목적지를 향하여 동료들과 함께 춘천 우두동 소시장까지 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기 고개 정상에서 산적이 지키고 있었다. 소 장사 행렬이 다가오자 산적들은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돈을 빼앗기지 않았다.

부사원 고개를 넘어갈 때 호랑이 등 산짐승이 출몰해 소 장사 행렬을 위협했으나 단결된 협동정신을 발휘해 무사히 넘겼다.

소 장사 행렬은 춘성군 동산면 새술막에 도착해 이형섭 씨의 마구간에 소들을 자게 하는 등 하룻밤을 유숙한 후 새벽에 일어나 목적

지인 춘천 우두동 소시장까지 무사히 도착해 소를 팔았다. 조찬영은 고가로 소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

소는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강원도 홍천에는 비탈 밭이 많으므로 소 두 마리가 한 겨울 이룬다. 마라소와 안소로 이웃이 함께 사육하므로 이웃에 사이도 좋다. 농촌의 재산 증식에도 유일한 동물이다.

현재 홍천 마지기 고개는 잘 개발됐다.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로가 설치되었다.

춘천 우두동은 동서 고속전철역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광명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43)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옷 만들어 연 62억원 매출, 직원 매년 해외연수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원장 김대원)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고용창출,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 장애인, 이주여성, 고령자 등 60명과 사무실 직원 12명이 피복을 전문으로 생산해 육군 동내의, 운동복, 춘추운동복 등을 방위사업청과 공군에 납품하고, 근무복, 단체복, 방한복, 티셔츠, 집배원복, 넥타이, 방탄방검복 등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피복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따른 교육 훈련, 장애인근로자들의 해외연수(매년 15명 내외)를 실시하고 있다.

홍천 중증장애인을 매년 고용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126만 4000원으로 전국 560여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중 최고로 자리

잡고 있다. 홍천읍 진리에 있던 작업장이 협소해서 지난해 연말에 북방면 하화계리로 신축 이전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 인증, 피복의 경쟁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인증 등을 받아 영업기반이 안정적이며, 지난 8월에는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인증(강원도)을 받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김대원 원장이 이종현(56) 사무국장을 칭찬했다. 2007년에 입사한 이 국장은 작업장 내부의 살림(총무, 기획, 예산, 행정 등)을 총괄한다. 생산1팀, 생산2팀, 완성팀 간의 유기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원자재 수급과 납품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챙긴다.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주고 있다. 현재 전반적으로 급여가 낮은 편이라서 납품처 확대 및 수주량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그들을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틈틈이 글쓰기를 좋아하며, 장애인 역도 심판자격증을 취득해 전국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24명의 팀원들을 관리하며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생산2팀에서는 동내의와 넥타이를 주로 생산하는데 미싱작업도 직접 하고 있다. 팀원 중에는 지적장애 팀원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지시를 해도 가만히 서있고, 청각장애인 경우 눈을 마주

보고 지시를 해도 의사소통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업 중에는 미싱 바늘에 찔리거나 쪽가위에 베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이의 방지를 위해 팀원들의 안전 교육에 주력한다. 장애인 직원을 3명의 주임들과 함께 자상하게 돌보며 장애인들에게는 미싱사가 작업을 마친 제품을 정리정돈하고 피복의 실밥을 제거하는 일 등 보조업무를 주로 시키며 업무에 적응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다.

이 팀장은 양춘숙(53) 주임을 칭찬했다. 2012년에 입사하여 생산1팀에서 근무하면서 27명의 팀원들

과 함께 운동복을 주로 생산하며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입사 전에는 서울에서 20여 년간 의류봉제공장을 경영하다가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서 2010년에 홍천으로 이사했다. 입사 후에는 공장 경영 때 익힌 숙련된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접목시켜 품질개선에 주력한 결과 직원들의 기술수준이 현격하게 향상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다른 봉제공장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가 입사 전에는 기술문제로 반품이 많았는데 입사 후 기술 지도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돼서 전체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아졌다. 의류 봉제 기술이 탁월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핵심직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양 주임은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우수 직원이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취약계층이 모여 근무하고 있는 생활의 터전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와주며 열심히 일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최정규 기자



이종현 사무국장



이동우 사원



이원용 팀장



양춘숙 주임

이종현 사무국장 - 직원 사기 올려 경쟁력 강화·수익성 개선에 앞장

이동우 사원 - 재단기술 탁월 노래 춤 실력 수준급인 분위기 메이커

이원용 팀장 - 미싱 작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인 업무적응 지도자

양춘숙 주임 - 의류봉제공장 경영 경험 살려 직원들 기술수준 높여

이 국장은 이동우(61) 사원을 칭찬했다. 2007년에 입사해서 ‘동내의’ 재단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사 전에도 재단 일을 해서 재단 기술이 탁월하며, 완성팀 직원 11명과 함께 동내의, 동체육복을 만들어 방위사업청, 공군 등에 납품하고 있다. 성격이 쾌활하고 노래와 춤도 수준급이어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재단을 하면서도 수시로 완성실에 가서 완성품 포장작업도 하고, 포장 작업 후에는 출고를 위해 차량에 적재하는데도 솔선수범한다. 납품이 시급한 일을 남기 안에 끝낼 때 보람을 느끼며, 제품 완성 후 출고할 때가 가장 기쁘다고 한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무난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살펴보고 옆에서 도와주며 소통에 힘쓰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현재와 같이 변함없이 직원들과 함께 오래오래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사원은 이원용(56) 팀장을 칭찬했다. 2007년 입사한 이 팀장은 춘천에서 태어나 결혼을 하여 홍천으로 이사했다. 현재 생산2팀에서

전국 민요경창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윤석례 씨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불러 최고점수 획득



◇ 윤석례 (70) 씨

“민요와 함께하는 인생이 너무 즐겁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전국 경서도 민요 경창대회(국악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윤석례(70·시니어예술

단 민요반 강사) 씨는 “민요반원들이 지금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봉사하면서 즐겁고 보람 있게 지내는 것이 꿈”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윤 씨는 한오백년과 강원도아리랑을 불렀다. 경연결과 윤 씨 등 2명이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상대가 고령자여서 아깝게 대상을 받지 못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실상 대상을 받은 것이다. 그는 남 앞에서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선생님(김보연 경기민요 대통령상 수상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단단히 마음먹고 출전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남편(81)이 퇴임 후 전원생활을 원해서

1998년 홍천에서 제2의 인생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2010년 16명의 단원으로 동아리모임인 강원소리패를 결성했고, 2015년부터는 홍천군노인복지관에 소속된 민요강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인복지관 민요강사, 20년 이상 끊임없이 배우는 열성파

올해 4월 ‘시니어예술단 민요반’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주1회 민요를 가르치고 있다.

봉사활동은 면민체육대회 등에서 월 5~7회씩 열고 있다. 그는 “40여 년 동안 한복의상실을 운영했는데, 민요를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민요를 부르게 된 것이 민요를 배우게 됐고, 이를 계기로 48세 때부터 민요학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그 후 경기민요 이수자인 스승인 김보연 문하생 1기로 등록해 현재까지 21년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동부민요 3급 교사자격증, 경기민요 2급 교사자격증 등을 취득했다. 그리고 경기민요에

관심이 많아져 홍천문화원에서 16년 동안 수업을 받고 있으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됐다. 그는 현재 홍천군문화원 민요반(29명)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강원소리 이수자인 강사로부터 주1회씩 전통소리를 배우는 등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하고 있

는 열성파이다.

그는 “민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홍천군노인복지관 민요반이나 홍천군문화원 민요반에 등록해서 기초부터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특히 “홍천군노인복지관이 민요반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가장 먼저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남영 기자



인생칼럼

착한 사람이 먼저 가는 이유



석도익

홍천 문인협회장

겨울의 문을 여는 늦가을엔 스산한 바람이 불어 선지 퇴색된 낙엽이 뒹굴기 때문인지 우울해 지는데, 이런 날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로 부고가 오면, 더욱 쓸쓸해진다.

모두가 바쁜 시대라 장례는 3일장을 치르므로, 서식에 준하여 부고를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빠른우편으로 해도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받아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전화로 부고를 알릴 수 있어서 편리하다.

부고를 접하면 인생무상이란 말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다.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라던가 또는 평소 존경하던 어르신, 아끼던 후배나 제자, 또는 늘 보는 이웃사람들……. 돌아가시는 분들은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불의에 사고나 몸쓸 병으로 인하여 일찍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특히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불의의 사고사가 더 많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수명이 있다. 수명을 다하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지만, 이 좋은 세상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다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야 큰 복을 받은 사람일 터이나, 평생 일만하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싶을 때 느닷없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장례식장에 문상 온 사람들은 침통한 모습으로 “참 아까운 사람이 먼저 갔다”고 하며 쓴 술잔을 비운다.

먼저 간 망자를 위로해서가 아니라 예상외로 서둘러 돌아가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법이 없으면 살지 못할 사람들이다. 참!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지내오던 좋은 사람만 빨리 돌아가는 것 같다.

어째서 착한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는 것일까?

선자(善者)가 선자(先子)인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착한 사람을 먼저 당신의 곁으로 데려 갔다고 하며 위안하겠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데, 이 좋은 세상, 장 고생 끝내고 복을 누리다 돌아가면 오죽 좋으련만 인명은 재천인가? 왜 신은 이디지도 불공평한지 모를 일이다.

이 풍진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착하게 살아가기가 더 힘든 세상이다.

잘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남을 헐뜯어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는 자, 법보단 주먹이 우선하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려면, 억울하게 당하고도 울분을 누르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며, 자존심도 굽히고 자신을 낮추며 살자하니, 그 화가 뭉쳐 가슴에 화병이 되고, 더하고 더해, 합병증을 일으켜 몸이 견디지 못하여 숨을 거두고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다.

화를 참지 말고 그때마다 표출이라도 하며 살았다면 병이되지 않았을 터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저승보단 이승이 좋다고 하지 않던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더불어 웃으며 살기로 노력하는 착한 사람인 선자(善者)가 신선 같은 선자(仙者)가 되어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이면 그게 바로 지상천국이 아닐까 싶다.